

부를 절제해야 함을 확인하였기에 그 치료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17

두경부에 발생한 광범위한 신경섬유종증의 치험례

- Treatment of Extensive Neurofibromatosis on
the Head and Neck -

한양의대 성형외과
이신규* · 최희운

신경섬유종증은 피부, 신경계, 연부 조직 및 골격계의 발육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성 질환으로 1882년 Von Recklinghausen이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1924년 Brooks와 Lehman이 연부 조직의 종양에 의한 골변화를 유발하는 데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는 Schwann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한 증추 신경 및 말초 신경의 종양을 특징으로 하고, 피부에서는 담갈색 색소를 보이는 Cafe-au-lait 반점이 있으며 그외에도 소화기계, 비뇨기계, 내분기계 및 골격계에도 기형을 동반할 수 있다.

이 질환은 주로 몸통과 두경부에 호발하고 대부분 조기에 발병하며 종물에 의한 추형의 교정뿐만 아니라 16~29%에서 neurofibrosarcoma나 malignant schwannoma등으로 악성 변화가 일어나고 골변화가 주위의 중요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연부조직의 종양에 의한 속발성 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원 성형외과 교실에서는 안구를 침범하거나 골변화를 유발하는 등 두경부 및 전신에 발생한 광범위한 신경섬유종증 환자 21례를 가능한 완전 절제를 시행하여 치료한 후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드리는 바이다.

18

비인강암 조직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한 Epstein-Barr Virus DNA 검출에 관한 연구

영남의대 이비인후과*, 미생물학교실*
병리학교실**

서장수 · 배성호 · 이태운*
김성광* · 최원희**

비인강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1977년 Nadol Hemderson 등의 Epstein-Barr Virus(EBV)가 종양발생 원인인자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이래로 여러 연구소에서 혈청학적 연구, 전자 현미경적 연구 등에 의하여 적어도 EBV가 비인강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있다.

최근 유전공학적 기법의 발달로 Virus의 DNA Sequence를 밝혀내고 이를 이용한 DNA hybridization에 의해 비인강암의 조직에서 EBV를 검출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은 조직내에 있는 미량의 Viral DNA sequence도 검출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31례의 비인강암으로 확진된 환자의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에서 EBV DNA를 이 PCR과 In situ hybridization 방법으로 검출하여 비인강암과 EBV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4례의 undifferentiated carcinoma(WHO type III)중 22례에서(91.6%) EBV DNA가 검출되었고, 6례의 non keratinizing squamous cell carcinoma(WHO type II)중 3례(50%)에서 EBV가 검출되었고 1례의 Keratinizing squamous cell carcinoma

(WHO type I)에서는 EBV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2) 경부전이 조직을 얻을 수 있었던 4례 중 전례에서 EBV를 검출 할 수 있다.

3) 대조군은 비인강 조직 20례 중 4례(20%)에서 EBV를 검출 할 수 있었다.

19

두개저종양의 수술적 치료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이원상* · 최은창 · 김희남

저자들은 과거 2년간 수술적치료를 시행하였던 두개저종양 20례를 대상으로 시술법과 치료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두개저종양환자의 치료와 예후판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1) 두개저를 침윤한 종양은 전두개저가 5례로서 전례에서 두개안면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측두개저는 9례로 측두하와접근법을 7례에서, 안면구개접근법 1례, 경정맥공접근법 1례를 시행하였으며, 후두개저는 6례로 중두개와접근법 2례, 전정미로접근법 3례 및 후두개하접근법 1례를 시행하였다.

2) 악성종양의 빈도는 전두개저가 가장 높았으며, 측두개저를 침윤한 종양의 병리소견이 제일 다양하였다.

3) 추적진료는 6개월에서 2년이었으며 양성종양의 경우 원발병소는 13례중 2례를 제외한 11례에서 완전제거되었으며 수술후 종물이 재발현된 경우는 2례이었고, 악성종양 7례중 3례는 술후 완전치유상태를 보였고 3례는 사망하였으며 1례는 종물이 재발된 상태이다.

20

전두개저 종양의 수술적 치료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최은창 · 홍원표

비강 및 부비동, 특히 사골동에 발생한 종양은 진단시에 대부분 국소적 침윤이 광범위한 것이 보통이며 전두개저를 침범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두개안면절제술(craniofacial resection)이 소개된 이래 전두개저와 함께 종양을 한 덩어리로 절제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으나 술식의 적용, 절제범위, 술후 재건술 등에 대하여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자들은 최근 두개안면절제술로 치료한 6례(양성종양 1례, 악성종양 5례)에 대하여 그 술식 및 임상적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21

두개저종양 수술시 내경동맥의 처치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이원상 · 김영호* · 홍원표

측두개저에서 병발한 종양으로 경동맥 삼각지를 침윤한 경우는 수술시 내경동맥의 처리가 어려운 문제로서, 치료방향의 설정 및 수술적 치료의 인자로 작용한다.

저자들은 과거 2년간 경동맥삼각지를 침범하였던 두개저종양환자에서 술전에 혈관조영술 및 풍선을 이용한 내경동맥 폐쇄시험을 시도하였던 10례를 분석하여 향후 치료방향의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내경동맥 폐쇄시험 결과는 양성인 경우가 6례이었고 수술중 내경동맥을 보존한 경우가 3례, 양측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 절단한 경우가 2례이었고, 시술로 합병증을 동반한 예는 없었다. 내경동맥을 보존한 3례중 1례에서는 종물이 재발되었다.

22

측두하와 병변의 수술적 접근

계명대의대 이비인후과*, 신경외과**